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㉓8498

每週 日曜日 發行

今周 一言

도덕 자체를 부정하는 자는 구하기 어렵다.

<열반경>

東國의 未來像 구축에 總力

◇… 「대학발전을 위한 대화」가 2
◇…일 오후 4시 본사주최로 행정대
◇…학원 휴게실에서 열려 재단측 학
◇…교측 대표와 학생 대표들이 참석
◇…석, 학교발전과 현재 우리가
◇…면하고있는 공동과제에 대해

로의 의견을 나누었다。질의와 답…◇
련으로 진행된 이날 대화의 자…◇
리에서 南都泳학생처장은 처벌학…◇
생 문제에도 언급, 『개전의 정…◇
이 확실히 나타날때는교육자적입장…◇
에서재검토할수도있다』고말했다。…◇

建設과 內實에 樂觀 綜合發展計劃 성숙

學生代表들과 진지한 對話

趙處長 吳常務

새로운 동국의 비젼을 모색하고 재단과 학교당국을 포함한 학생의상호유대와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본사에서 마련한 이날대화의 자리에는 재단측에서 吳法眼상무이사 학교측에서 李龍範총무처장 교수측에서 趙昌華문리대학장 南학생처장이 참석하고 총학생대표 11명이 참석하여 장장4시간에 걸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懇話에서 吳상무이사는 재단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비록 밖으로 나타난 대학발전이 부진하다 할지라도 동국학원은 오늘까지 할퀴적인대학으로 경영되어왔으며 세계적인대학으로 발전할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전등 국인은 현재 재각기 깊이 있는 자가비판을 통하여 자 올다해야할때』라고말했다。 공사 대규모 校舍의 매입등 이 불원간 매듭을 지을 단계라고 말하고 『이제본교는 外的인 建設과擴充計劃이소기의 목표에 도달하고있으나 內的인 성장에 더욱박차를 가해야할때』임을 강조하면서 현재구상중인 본교의 종합발전계획의 일부를 설명하였다。

이날 학생대표들은 교수진 강화문제를 비롯한 농장 등 대학시설 확충문제 학생 지도 체제 확립문제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南학생처장은 학원 폭력 에 관한 답변에서 『앞으로 학원내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형태의 폭력도 엄단할 방침이며 학생처는 학생들로 구제문제를 질의받은 생처장은 金총장의 소신을 고 들발적인 사태를 등기의 옳고 지른 사태는 었기 때문에 부득이 취한 것을 가티기 전에, 조치이다。 먼저 그랭등에 대한 책임 하나로 생각한다。 이번 처벌된 학생들은 대고 처벌된 학생은 개전의 정이 확실히 나타난다면 교육자적 입장에서 검토할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3면)

英文學會誌속간호 동국리·뷰발간

문리대 영어영문학회에서 學會誌「동국 리-뷰」를 내놓았다。

이미 1959년에 창간되었던 「아톨론」誌를 동국대 영어영문학회가 계승하여 계속 年刊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4·6版 70여 페이지에 걸친 이번 속간호에는 李顯奎·李昌培 교수등의 논문과 同門·재학생들의 글도 실고 있다。

洪君등우수상 釜山大모의국회서

본교 洪先基(政外·2)군은 지난 22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주최 제6회 모의국회 발표부문에서 개인 우수상인 신민당총재상을 획득했다。 洪군은 전국 14개대학이 참가한 이 모의국회에서 야당당수로 활약, 「노동조합법」을 발표하여 벌봉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洪군외에 김현배(政外·3)군은 경향신문사 사장상을, 정태환(政外·3)군은 경남도지사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南都泳 학생처장은 29일 한 송년한 지원과 보충등회 승단및 승급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운식 사범(공인7단) 외 두명의 심사관에 의해 결정된 이번 승단심사에서는 3단에 이영일(경영·3)군을 비롯하여 2단6명, 초단 8명등 도합 15명의 유단자가 새로 배출되었다。

大學生 佛聯 13일本校서 臨總

대학생 불교연합회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13일오후2시30부터 본교 C309강의실에서 열린다。 본교 불교학생회를 비롯한 시내 20개 대학 불교학생회에서 참가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1부에서 기념강연으로 서정주교수(불교문학평전)와 서정주교수(대학생 불교운동의 방향)의 강연을 들고, 2부에서는 총회에 들어가 일각지회 전국 불교학생회 교연합회의 현안문제를 다룸 예정이다。

工大 신입생體典 5일, 농구등 3種

공대 학생회에서는 제1회 공대 신입생 친선체육대회를 5일 오전9시 신축 운동장에서 갖는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세 부문에서 「톰녀면트」로 진행, 우승팀에게는 工大 학장이 수여한다。

선무부有段者 "5명새로배출

선무부에서는 지난달 9일 선무부도장에서 가졌던 제28회 정기 승단심사에서 5명의 유단자를 새로 배출했다。 이번 승단심사에는 「닌파·플레이」인박항서作명의 「맴버」로 구성되어있는 『死』와 유재창作 『아무도 모른다』 제1회 공연이 지난 겨울 제1회 공연하고 있다。 이번 1일부터 연에서는 「불가능한사람들」 계의 주목을 끈바있다。 현재 공연중인 「패닉·플레이」는 이미 구미극연 계에서 불의를 일으킨것 번째 공연을갖는 극회 『울』 극계에서 불의를 일으킨것

전위극「死」등公演 同門劇會「울」會員들이

본교출신동문및 재학생으로 성된 극회 『울』에서는 현재 재학생과 동문등 12명이 『死』 『아무도 모른다』 다수가 참석했는데 유상근교수·명지대(학장)의 「한국관광제도의 역사적 개관」, 서원우교수(서울大 행정대학원) 「독일에서의 행정학 연구방향」이 강연되었다。

한국行政學會 29일月例發表

지난 29일 오후2시 행정대학원 휴게실에서 한국행정학회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행정대학원 학생들과 학부생 다수가 참석했는데 유상근교수·명지대(학장)의 「한국관광제도의 역사적 개관」, 서원우교수(서울大 행정대학원) 「독일에서의 행정학 연구방향」이 강연되었다。

學生會選擧연기

29일 주례 학처장회의에서는 총학생회장선거를 오는 9월로 연기할 것을 결의하였다。 회장단 선거를 不得已연기한 이유는 ①학생회의 공식적인 기구가 마비되어 자를적으로 선거사무를 진행할수 없고 ②각종 선거법위반등 선거분위기가 날로 과열되여 가고 있어 이런 공도속에서는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③대학의 선거풍토에 대한 對內外的지탄이 높아가고 있음을 고려하여 교수단에 비추어, 지도교수단에 서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확고한 지도방안을 세우기 위해 장정 등이다。

또 학교당국자는, 일체의 학생활동은 총학생회등 통해 학생들의 공식기구를 바탕면서, 학생들은 건전한 학구풍토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말하였다。

李코취 向印 국제 심판으로

본교 축구부 李萬鉉 코취가 오는 16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1회 자카르타 축구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게 된다。 오는 12일 출국하는 李코취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태국, 월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참가하여 총 12개 대학팀중 5위에 입상하면 전국대학생 처녀출전, 대학팀 18명의 유단자와 지도교수 30명의 검도부 회원을 가지고 있은 검도부 발전에 공헌, 검도부 무적인 계기가 될것이다。

검도部 5位에 대학聯盟戰서

지난 23일 창설된 본교 검도부는 31일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학생 검도대회에서 12개 대학팀중 5위에 입상하였다。

쿠사「웍·캠프」 농촌봉사활동至大

본교 「쿠사」회원 14명은 지난년 30·31일 「웍·캠프」를 양평군양근면 폭우로 경작지가 유실되어 도시인과의 농촌인과의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본교 「캠프」기간중에는 목요일 끝내고 운동장의 8년생 정원수 두그루를 식수했다。

李漢相居士가세워 三寶會館개관

韓日친선 「레스링」 교환경기차 방문단 李永燮 본교 「레스링」부 李永燮외 선수로 참가했던 선수 (永·4)군등 3명이 지난 24일 귀교 했다。 본교생을 포함한 선수들은 明治大팀과 「나고야」와 「고가와」에서는 각각 선발팀과 대전을 갖어 모두 승리하였다。 이번 교환경기에 참가했던 본교팀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로취 △李永燮 △金知經 △李漢相 △金貿(2) △프라이 △金文基 △김종이 △김금 △김명 △김종진 △김종수 △김종일 △김종수 △김종일 △김종진 △김종수 △김종일 △김종진 △김종수 △김종일 △김종진

東國의 「비존」

兌言 土

오늘날 세계의 大學街는 진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선진국의 大學은 大學의 大衆化·탈모스的 평창화와 知識과 技術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傳統的인 大學制度가 새로운 不適應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開發도상 國家의 大學도 학원은 연구·교육시설의 충실화와 대학의 人的 資源의 확보 및 大學관리의 合理化라는 기본문제가 있다. 이것은 참은 사업안에 뛰사람의 손에 의해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東國學園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도자는 무춘한 노력을 하여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지도자인 재단측과 학교 일선행정의 지도자의 끄러한 의도가 敎授나 學生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느낌이 없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난 5월22일 오후3시에 교수회의실에서 가진 재단법인 東國大學 評議員會의 학교 구성원들이 모고 그 책임자가 연석한 金雄敎授會議는 그동안 大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털어놓고 우리의 대학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기하여 준 점에서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원래 大學은 재단·학교행정책임당국자·敎授·學生·職員이 각기 상위한 위치에서 硏究·敎育 및 奉仕라는 기능을 有機的인 協助를 통해 발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쪽만의 誠意와 힘만으로서는 大學의 理想이 구현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大學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인식한 당국자는 敎授會議에서 牽世紀가 넘는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동국학원이 民族의 滯貧도 이룩된 佛敎財團으로서 현대의 한국사회가 바라는 大學으로 발전할 기틀을 모색하고 있을 敎授諸位의 對話를 통해 밝혀 주었다.

당국자는 불교재단의 막대한 滯財를 함으로 바르게 활용하고 다점했다. 그러한 예로서 大學「캠퍼스」의 확보 등을 들수 있다. 그 밖에 도 우리들 대학구성원이 서로 협조하면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실히 인급하였다. 이와 같은 당국자의 새삼스러운 언급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충분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建設的이고 前進的인 비존(批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동국학원을 빛나는 전통을 가진 역사에 비추어 보아, 하는 두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가 大學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견하고 나아가야 하겠다. 부여받은 敎授諸位의 學生들은 기본의 연구·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겠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국자나 大學행정의 실무책임자는 현재의 僵側을 가장 合理的으로 管理·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원의 공동체는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지난번 당국자가 연석한 교수회의는 동국의 구성원이 對話를 통해서 「비존」의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서로가 이해를 깊이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하여 農業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농사개량시책으로는 農事試說, 山林경제등 서적을 발포하였고, 堤防, 池澤등을 일부 수축하였다. 그리고 또 부역을 장려한 記事가 있으며, 용사보호조약이후 의국문명에 접하면서 庶政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농업지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특히 장오경장이후 1900년에 이르러 蠶業시험장이 설치되었고, 기술자를 거기에서 육성하는 사업도 시작되었다.

1910년 스위 한일합병후 일본의 自國을위한 농업시책에대한 견의 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았다. 1945년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은 우리나라에 軍政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한가지 미 뒤게 하는것이 한국농촌 의 가장 가난한 것이다. 유도 있어 여러가지 失 政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미 뒤게 하는것이 한국농촌 의 가장 가난한 것이다. 이해치 못 하였다는이 어물고 또 한국인이라 는것을 잘 한국사정에 의하 고 그 들의 숙직 한 교배에 의하면 軍 政을 실시 하는 도중 한국사정에 의하 고 그 배에 의하면 軍 政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농업시책에대한 견의 도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았다. 1945년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미군은 우리나라에 軍政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한가지 미 뒤게 하는것이 한국농촌 의 가장 가난한 것이다. 이해치 못 하였다는이 어물고 또 한국인이라 는것을 잘

大學敎育을 위한 對話

학교·재단·학생이 말하는 東國의 오늘과 내일

(上)

□ 그동안 소원했던 대학당국·재단, 그리고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대학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사에서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 특히 이자리에서는 지난 5·19사태 이후 어수선했던 대학내의 분위기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당국과 재단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뜻을 밝혔다. □ 이자리에는 학생대표 11명과 趙昌華 총무처장, 吳法眼 재단 상무이사와 南部泳 학생처장, 李龍範 문리대학장이 참석하여 학생대표들과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다음은 학생들의 질의가 있기전 財團측을 대표한 吳法眼 상무이사와 학교측을 대표한 趙昌華 총무처장의 발언요지이다. 학생들의 질의內容과 학교·재단측의 답변내용은 다음호에 싣는다. <편집자>

參席者

<財團側>▲吳法眼 상무이사
<學校側>▲趙昌華 총무처장 ▲南部泳·학생처장▲李龍範 문리대학장
<學生側>▲吳出世(國4·총학생회장직무대리) ▲宋炳旭(印哲4·佛大學生會長) ▲玄得洪(經4·대의원의장) ▲염환균(法4·대의원) ▲曺在仁(政4·정치학회장) ▲徐鎭圭(法4·법웅대학장) ▲李丙天(農4·농연부대표) ▲홍면유(電工3·「실」불협회장) ▲최문경(營3·여학생회총무) ▲배선식(英3) ▲김희창(食工4·응원단장)
<本社側>▲宋郁 본사주간 ▲金炳吉 편집부장

財團側

吳法眼 〈재단常務理事〉

대학의 발전을 위해 쏟아지는 교수님과 학생그리고 경향하는 재단의 경영자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말하겠다. 育英사업이 재단의 기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본인은 육영사업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동국학원은 私學은 이름만 私學이지 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일부 지주들이 재벌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 동안 우리는 순수한 민족자본으로 해방부터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대학들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침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먼저 동국인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줄 믿는다. 소위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내에는 교육화된 타성이 만연했고 고정화된 사고방식이 만연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동국학원의 기본재산은 잔반분이었다. 이러한 재산은 현재 등기상으로 67억원에 달한다. 물론 재결토될 점도 있지만 현재 문교부에 보고된 동국학원의 재산은 등기가 40억원 토탈 1백 7억여원을 돌파하였다. 그뒤에도 계속 학원재산이 증대되어 부실한 국립학교와 중·고교까지 포함해서 우리 동국학원의 재산은 현재 등기상으로 67억원에 달한다. 물론 재결토된 것도 있지만 문교부에서 조치를 밟게된다. 우리 재단은 대학재단의 기본재산은 50억원 이상 동국학교 재산이 그이하일때는 폐쇄되어 가야하며 동국학교 재산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종교에서는 기업적인 면으로는 운동장을 지금까지 우리재단에서 계획한 중요사업은 큰 행적이 없었다. 그 동안 학교 정영에는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채없이 대학을 경영하면서 대학시설 비나 학과증설등 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여 오늘의 설비를 이룩하게 수천하고 설계를 갖추었다. 그 외에 대학증설 나 법학시설 또는 운동장증설 등 문제점은 앞으로는 운동장을 지금까지 우리재단에서 계획한 중요사업은 큰 행적이 없었다. 그 동안 학교 정영에는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채없이 대학을 경영하면서 대학시설 비나 학과증설등 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여 오늘의 설비를 이룩하게 수천하고 설계를 갖추었다. 본교 校址확장과 奬建을 위한 매입건만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재단이 나 학교, 어느 한 편의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대학의 발전이 부진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私學재단 입장의 그럴듯 념처럼 우리 동국학원도 아무런 비전이 없는 재단이나 문고 싶다. 대학의 未來 志向的인 지표위해 재단은 학교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대학의 시설 내용의 百年大計를 위해 자세를 정립해 왔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자리를 빌어 재단은 이자리를 최근 수년간의 자취를 말하고자 한다. 63년도에 우리 재단이 접수된 동국학원 이사진을 개편하여 6년만에 불하기 때문에 재단의 부채를 마련하고 전불도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후 우리 재단에서 비로소 5천정도 처음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했으니 그간의 사정을 모르고는 이야기가 안된다.

그때만 해도 宗團과 학교간에는 거의 유대가 없었다. 종단에는 1만7천정보의 부동산을 학원 유지 재산으로 내어 주겠다고 두 차례에 걸쳐 中央宗會에서 결의했으나 단 한평도 넘겨 받지못하고 재단에서 비로소 5천정보를 이전 등기시켜 오늘의 막대한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종단에 넘겨 받지 못한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말하겠다. 첫째는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운동장 공사다. 재임時 서 재임사에서 밝힌바 있는 3대목표는

우리들의 아픔을

東國人의 자세 확립을 위해

□ 鄭 崙 植 □

돌이켜보면 머얼리 여년전 민족의 온갖 混亂속에서 오르지 빛나는 등불이 되고자 했던 본교가 꿈임의 결여운걸 이 굽이쳐 64년. 많은 사연들은 쌓이고 또 그렇게 잊혀져갔다.

그러나 여기, 항시 잊히지않는 아니 결코 잊을수 없는 寶貨이있다. 그건 우리 동국의 얼이요, 찬란한 전통속에 살아 움직여온 동국의 숨결일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오늘의 모든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수 없다.

傳統은 오랠수록 찬란하고 영원하며, 과일은 성숙할수록 더욱 맛이 난다는 말로 있긴하나 우리에겐 뭔가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린 아직 무한한 가능성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 파아란 하늘을 향해, 그리고 나태와 안일속에 安住한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 동국은 아직 살아있다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수 있다고 외치며 동국인의 자세를 애기할때가 왔다.

대학은 민족의先驅요 지성의 양심이며 역사는희생의 값진 피흘리고 자라온 인간의 나무요, 과거와 현재의 생명없는 대화다. 우리의 선배들이 흘려온 땀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내일의 사람들을위해 흘리고 있는 값진 희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동국을 생각해볼때 오랜전통은 희생보다는 안일한 타협, 적극보다는 消極으로 우리를 무겁게 억눌러 오지않았나 한다.

그리고 철저하리만큼强靭한 개혁의 선봉자들은 과연어디에 애기한실존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용감했는가가 의심스럽다.

우리들의 확기찬 대화와 혐음을 꽃피울수있는 정열은 과연 어디에 온 폐되어 있는지 그주소를 알고싶다.

斷絶의 狀況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요구할것이며 과연 누구를원하고있는가를 直觀할때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思考로 오늘을 살아야할까.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창조와 자기세계의 擴充으로 내적 충실을 기하며 언제나 사회로부터, 遊離되어 스스로 좁은 자기세계에서만 날버둥 할것이다.

지금 이 시각 「르네쌍스」의詩人 레렌티우스의 외침이 어느정도 적합할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모든 일은 나와 무관할 수가 없다」고.

「나는 동국인이기 때문에 동국에 관한 모든 일은 결코 나와 무관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未來.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는 시간을 생각할때 보다 중요한것은 현재를, 보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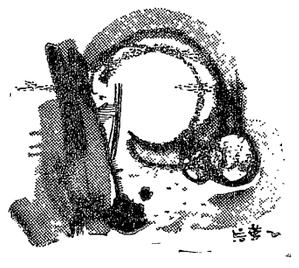
「太初에 行動이 있었다」 行動 하나하나가 그대로 영원한 동국의 遺産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무정견을 몰아올 것인가는 역사가 말해 줄 것이다.

그러한 역사의 동국인을 위해 우리들은 소리를 들을 것이며 참다운 人間에의길을 어떻게 좁혀 갈 것인가를 과제로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과 학교는 더욱 유기적으로 서로의 意思소통에 꺼리낌이 없어야 될것이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있으나 우리는 무엇 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동국인의 의무이다.

우리는 이것이다. 우리들의 아픔을 또다시 후배들에게 그대로 물려서는 안된다. 역사는 부단히 努力하는 개혁 창조작업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명한 사람은 결코 한번 범한 과오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국의 역사적인 요구 속에 우리는보다 웅장한 동천 영원한동국발전의 鑑상이 되어 끊임없이 사고하고 행동하여 새로운 동국과 자기를 탈구하자. 〈法學科〉



「패닉」의 意味

——本格的 試圖를 바라면서

金 興 雨

〈演映社조교〉

1、「패닉」의意味

최근 급격히「전위극」, 「초전위극」「첨단연극」 등의, 그대로 「샤—프」한 「렛텔」이 붙은 「장르」의 연극이 소개 또는 젊은이들이 주축을 이룬 소극장 단체에 의해 상연 시도되고 있다.

「패닉·플레이」는 그 뜻이 말하듯「초전위극」적 색채가 짙은 새로운 「장르」에 의하면 이는 희랍의 목양신(牧羊神) 인 「판」(Pan) 신에 의하여 인간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패닉이란 보는 것이로 하여금 공포와 당황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즉,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는 「연극」의 재 연극화」의 작 연극이라던지 「연극」의 계열 이었다면 「아라발」나름 대로의 성격을 고취한「패닉」이라는, 이른바 공포와 당황을 일깨우는데 의 당위성이 있지 않는가 된다.

2、벌거벗은誤解

그러나 朴元緖에 의하 면 「아라발」에 의해 「패닉」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바람에 극계에서나 또는 일반들은 「벗기는 연극」으로 패닉이 오듯퍼 졌다고 윤리문제가 대두 되었었고 극계에는 새로운 바람을 조금이나마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패닉」은 전위극의 기미에서 벌거벗겼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연극계보에도 없었던 이름의 극이고, 「벌거벗는 연극」이고 보니 문제는 문제였다. 벽거벗 긴다고 윤리문제가 대두 되었었고 극계에는 새로운 바람을 조금이나마 불러 일으켰